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 학업요구를 통한 시험불안의 매개된 조절효과*

장 은 비 변 은 지 성 현 모 이 상 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매개된 조절 모형을 이용하여,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학업요구, 시험불안, 학업소진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시험불안을 완전 매개해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으면 시험불안이 높고, 시험불안이 높으면 학업소진도 많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학업요구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을 때, 학업요구가 과다하다고 지각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시험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학업소진과 시험불안을 줄일 수 있는 개입방안 및 본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회부과 완벽주의, 학업소진, 시험불안, 학업요구, 매개된 조절효과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1017499)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상민,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Tel : 02-3290-2306, E-mail : leesang@korea.ac.kr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으며 독립이라는 발달 과업에 당면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학생은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여 획일화되고 수동적인 생활을 했던 중·고등학교와 달리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생활해야 하는 시기를 새롭게 맞이하게 된다(유계숙, 신동우, 2013; 이숙정, 유지현, 2008).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학업은 진로와 더불어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김성경, 2003; 유계숙, 신동우, 2013; 이숙정, 유지현, 2008; 이은희, 2004). 대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크게 경험하는 이유는 우선, 평가방식이 중·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학점은 교환학생 선발이나 기업체 인턴, 이후 취업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생들은 시험과 같은 평가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시험불안은 평가 상황에서 경험하는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반응으로(Liebert & Morris, 1967), 개인 내적 요인 뿐 아니라 외적 혹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유발된다(예: 염시창, 박현주, 2005; 정종희, 정현희, 이귀숙, 2009; 최원혜, 문은식, 2004). 또한 학업소진은 학업스트레스가 만성화되어 발생하는데(이자영, 2010), 다양한 개인 내적 요인(예: 박일경, 이상민, 최보영, 이자영, 2010)과 환경적 요인(예: 김민애, 이상민, 신효정, 박양민, 이자영, 2010; 한은아, 김보영, 이상민, 신효정, 2011)이 이와 관련해 연구되어 왔다. 지금까지 시험불안, 학업소진과 같이 학업 문제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초·중·고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주된 스트레스원이 학업 문제임을 고려할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학업 관련 연구도 폭넓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개인의 완벽주의 성향은 시험불안(염시창, 박현주, 2005; 정아현, 강민주, 2014; Eum & Rice, 2011)은 물론 학업소진(이자영, 최혜라, 2014; 이현아, 조한익, 2013; Chang, Lee, Byeon, & Lee, 2015)과 관련하여 많이 연구되어온 변인이다. 선행 연구들(이자영, 최혜라, 2014; 이현아, 조한익, 2013; Chang et al., 2015)에서는 완벽주의의 하위차원을 구분하고, 그것이 시험불안 또는 학업소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꾸준히 밝혀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완벽주의와 시험불안 혹은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를 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불안과 소진의 관계를 다룬 연구(예: 신효정 등, 2011)는 있지만, 시험불안과 학업소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시험불안과 학업소진, 완벽주의 간의 관계를 한 장면에서 살펴본 연구 역시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변인들을 한 장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대학생들의 학업 장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시험불안과 학업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봄으로써 그에 따른 개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변인으로서 학업요구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한다. 교육이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에서, 학생들은 부모나 교수로부터 과도한 학업요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학업 부담감은 평가에 대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즉, 완벽주의가 시험불안과 학업소진에 미치는 개인적 특성 요인이라면, 학업요구는 외부적 영향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의 완벽주의 성향, 그중에서도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시험불안 및 학업소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시험불안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으로서 학업요구의 역할을 알아볼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부과 완벽주의, 학업요구, 시험불안, 학업소진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시험불안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학업요구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시험불안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학업소진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지치고 고갈 되었을 때 우리는 소진되었다고 말한다 (Freudenberger, 1974). 초기 소진 연구는 서비스 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진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예: 김민애 등, 2010; Chang et al, 2015; Chang, Lee, Byeon, Seong, & Lee, 2016). 학업소진이란 과도한 학업 부담과 지속적인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증상으로 정서적 탈진, 냉담, 무능감으로 구성된다(Schaufeli, Martinez, Pinto, Salanova, & Bakker, 2002). 정서적 탈진은 지나친 학업요구로 인해 지치고, 감정이 메마른 상태이다. 냉담은 주어진 학업 활동에 대해 거리를 두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냉담한 학생들은 학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태도를 취한다. 마지막으로, 무능감은 학생으로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각하는 것으

로,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Schaufeli et al, 2002; Shin, Puig, Lee, Lee, & Lee, 2011). Koeske와 Koeske(1991)에 따르면, 이러한 학업소진은 학업 스트레스와 부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를 이해하고,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업소진에 대한 개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학업소진은 학업과 관련된 대학생들의 심리 및 적응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변인이다(고홍월, 2012).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소진 관련 연구들은 동기(고홍월, 2012; Stoeber, Childs, Hayward, & Feast, 2011), 대처유연성(Gan, Shang, & Zhang, 2007), 부적응적 기질(Jacobs & Dodd, 2003), 대처방식(유계숙, 신동우, 2013) 등이 학업소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Zhang, Gan과 Cham(2007)의 연구에서는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 밖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업소진 연구에서는 과중한 학업요구(김민애 등, 2010; 이자영, 2010), 내외 통제성(조한익, 이현아, 2009), 완벽주의(이현아, 조한익, 2013; 조한익, 이현아, 2010; Chang et al., 2015), 자아존중감(김영실, 이지연, 2012), 자기통제감(남상필, 이지연, 장진이, 2012) 등의 변인이 직·간접적으로 학업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사회부과 완벽주의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성격 요인 중 하나로 완벽주의를 들 수 있다(조한익, 이현아, 2009, 2010; Chang et al., 2015). 완벽주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참조:

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Hewitt & Flett, 1991; Rice & Preusser, 2002; Slaney, Rice, Mobley, Trippi, & Ashby, 2001). Hewitt과 Flett (1991)은 완벽주의를 자기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로 구분하였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자기 스스로에게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부과하고, 자신의 행동이나 능력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 비판하는 것이다(Hewitt & Flett, 1991). 이러한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부적응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Chang & Sanna, 2001), 적응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여겨진다(Bong, Hwang, Noh, & Kim, 2014; Chang et al., 2015; Chang & Rand, 2000; Klibert, Langhinrichsen-Rohling, & Saito, 2005; Miquelon, Vallerand, Grouzet, & Cardianl, 2005).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중요한 타인이 제시한 기준에 도달해야만 그들로부터 인정받거나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Hewitt & Flett, 1991).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부적응적이고 병리적인 완벽주의로 보고되고 있다(Chang et al., 2015; Dean, Range, & Goggin, 1996; Klibert et al., 2005; Miquelon et al., 2005). 마지막으로,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타인이 완벽하기를 기대하고, 그 기대에 맞춰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다(Hewitt & Flett, 1991). 본 연구에서는 이 세 차원의 완벽주의 가운데, 완벽하기를 기대하는 대상이 자기자신이고, 부적응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된 사회부과 완벽주의에만 관심을 두고자 한다.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타인이 부과한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까봐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이 크며, 심할 경우 그로 인한 우울을 경험하기도 한다(김병직, 이동귀, 이희경, 2012; Flett, Hewitt, Garshowitz, &

Martin, 1997). 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해 사회불안(박지연, 양나미, 2014)과 대인불안(설희정, 이동귀, 배병훈, 2014)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학업장면에서도 부적응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불안민감성을 매개해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며(조이슬, 강영신, 2015), 발표 불안(신정민, 박명숙, 함경애, 2014), 시험불안(박유미, 임영진, 2015; 이현주, 손원숙, 2013), 학업소진(예: Chang et al., 2015)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

완벽주의와 학업소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예: Chang et al., 2015, Chang et al., 2016)에 따르면,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학업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Chang과 동료들(2015)은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외적 동기를 매개해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자들은 외부로부터 보상을 얻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외적 동기가 강하고, 그러한 외적 동기가 강할수록 학업소진이 많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내적동기를 매개해 학업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강할수록 내적동기가 강하고, 내적동기가 강할수록 학업소진도 덜 되는 것이다. Yu, Chae와 Chang(2016) 역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매개해 학업소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완벽주의를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구분한 연구들(이현아, 조한익, 2013;

Zhang et al., 2007)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Zhang과 동료들(2007)은 적응적 완벽주의는 학업 참여(engagement)에,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물론 이들은 완벽주의를 Hewitt과 Flett(1991)의 세 차원에 따라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부적응적인 완벽주의로 구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Hill & Curran, 2015; Stoeber & Otto, 2006), 이러한 결과 역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소진간의 정적인 관계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업 장면이 아닌 다른 장면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소진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운동선수들의 소진에도 영향을 미친다(Hill, Hall, Appleton, & Kozub, 2008). 또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Childs & Stoeber, 2010, 2012)에서도 사회부과 완벽주의 점수가 높으면 소진을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소진의 관계를 다룬 대다수 연구들에서는 이 두 변인이 유의미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만 밝혔을 뿐, 이 두 변인 사이의 매커니즘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 완벽주의가 성격적 특성(Hewitt & Flett, 1991)이라 변화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사회부과 완벽주의자들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부정적 결과 사이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부과 완벽주의, 시험불안, 학업소진의 관계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을 연결하는 매커니즘의 하나로서 시험불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시험불안은 평가 상황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 및 신체적 반응이다(최원혜, 문은식, 2004; Liebert & Morris, 1967). 이렇게 평가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의 정도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Spielberger, Anton, & Bedell, 1976),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에 따라서도 개인이 느끼는 시험불안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최근 들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시험불안의 관계를 다룬 다양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현주와 손원숙(2013)의 연구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시험불안의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던 반면,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시험불안의 하위 요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시험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혜와 문은식(2004)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집단이 비완벽주의 집단에 비해, 그리고 사회부과 완벽주의 집단이 자기지향 완벽주의 집단에 비해 시험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연구들(정아현, 강민주, 2014; Mills & Blankstein, 2000; Stoeber, Feast, & Hayward, 2009)에서도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시험불안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시험불안은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업소진은 우울, 강박,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신효정 등, 2011; Lee & Larson, 2000). 시험불안은 상태불안 뿐 아니라 특성불안과 관련이 있는데(신민섭, 조수철, 유태익, 1999), 불안이 증가하면 학업소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신효정 등, 2011). 또한 시험불안과 학업소진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불안과 소진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Richardson, Burke, & Leiter, 1992;

Turnipseed, 1998)은 불안이 소진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시험불안이 높은 학생들은 낮은 학생들에 비해 학업 수행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Chapell et al., 2005; Rana & Mahmood, 2010; Zamir & Hina, 2014), 학업소진이 낮은 학업 성취로 인한 무능감을 포함(Shin et al., 2011)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도 시험불안은 학업소진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시험불안을 매개하여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시험불안의 관계에서 학업요구의 역할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시험불안을 매개해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요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시험불안은 크게 인지적 요인(Worry: W)과 정서적 요인(Emotionality: E) 두 가지로 구성된다(Liebert & Morris, 1967). 시험불안의 정서적 요인은 시험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긴장과 같은 반응들인 반면, 시험불안의 인지적 측면은 주로 걱정(worry)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자신의 수행에 대한 걱정, 실패에 대한 걱정, 상대방과의 능력 비교로 인한 걱정 등을 포함한다(Liebert & Morris, 1967). 김문주(1990)에 따르면, 시험이라는 사건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따라 시험불안 수준은 달라지며, 이러한 사건 지각에는 다양한 개인 내적, 외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즉, 시험불안은 완벽주의와 같은 개인 내적 특

성 뿐 아니라 다양한 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박병기, 임신일, 2010),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외적 요인 중 하나로 과도한 학업요구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Flett과 Hewitt(2005)에 따르면 완벽주의의 부정적 영향은 다양한 변수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패보다는 성공을 자주 경험하는 완벽주의자라면 완벽주의적 특성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비교적 덜 경험할 것이다(Flett & Hewitt, 2005). 또한 선행 연구들(예: Chang et al., 2016)에서는 완벽주의자들의 높은 기준 그 자체가 부정적 결과를 유발하기 보다는 현재 수준과 목표 수준의 차이가 클 때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완벽주의자들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현재 능력에 맞게 목표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Chang et al., 2016; Zhang et al., 2007). 그러나 사회부과 완벽주의자들에게 있어 목표는 외부로부터 부과된 것이고, 그것을 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표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참조: Hewitt & Flett, 1991).

과도한 학업요구는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업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감을 의미하는 것으로(조혜진, 이지연, 장진이, 2013) 해야 할 공부의 양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대부분 높은 학업요구를 경험하며(이자영, 2010), 과도한 학업요구는 학업장면에서 학업소진(김민애 등, 2010; 이자영, 2010), 학업 지연(장진이, 이지연, 2013)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업요구와 시험불안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기 어렵지만, 시험불안이 시험 당일 뿐 아니라 시험 전과 시험이 끝난

후에도 지속된다(최원혜, 문은식, 2004)는 점을 고려할 때,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크면 그만큼 시험불안도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학업요구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부모의 성취압력과 시험불안을 다룬 연구들을 통해서도 학업요구와 시험불안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로부터 학업 성취에 대한 압박을 받고, 학업적 부담감을 경험하는 학생들은 시험불안을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지은, 추상엽, 임성문, 2009; 정종희 등, 2009). 오지은 등(2009)은 부모의 학업적 성취압력이 클수록 자녀의 사회부와 완벽주의가 강해지고, 이는 다시 수행접근 또는 수행회피 목표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는 시험불안도 커진다고 보고하였다.

과중한 학업요구는 우리 사회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조혜진 등, 2013), 사회부와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학업적 요구를 그들이 달성해야 하는 또 다른 학업적 목표 또는 기준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학업적 요구가 과다하다고 지각하는 사회부와 완벽주의 성향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참조: Chang et al., 2016). 구체적으로, 학습 상황에서 사회부와 완벽주의가 높은 학생들은 학업요구를 달성해야 하는 학업적 목표나 기준으로 받아들여, 학업요구가 크다고 지각할수록 시험불안을 더 높게 경험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를 시험불안이 매개하는지와 더불어, 사회부와 완벽주의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학업요구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소재 대학에서 교양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 34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 최종 분석에서는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22명을 제외하고 총 326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참가자의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201명(61.7%), 여학생은 125명(38.3%)이었다. 학년은 2학년이 160명(49.1%)으로 가장 많았으며 3학년(69명, 21.2%), 1학년(58명, 17.8%) 그리고 4학년(39명, 12%) 순이었다.

측정도구

사회부와 완벽주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Hewitt & Flett, 1991)는 완벽주의의 행동적 특성보다 그 행동이 향하는 대상 및 그 기준을 누가 부과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척도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부와 완벽주의’ 등 3가지 차원으로 구분되며, 각 차원당 15문항씩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기연(1993)이 번역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은 나에게 완벽함을 기대한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기대하는 것을 만족시키기가 어렵다’ 등으로 이루어진 사회부와 완벽주의 척도 15문항을 사용

하였으며, 문항의 신뢰도는 .72로 나타났다.

시험불안

시험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김문주(1991)가 Spielberg(1980)의 TAI(Test Anxiety Inventory)를 참고하여 개발한 시험불안 척도 TAI-K(Test Anxiety Inventory-Korea)를 사용하였다. TAI-K는 초등학생용과 중·고등학생용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것은 중·고등학생용 35문항으로, ‘학교 선생님’과 같은 단어는 대학생에게 적합하게 ‘교수님’으로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시험불안의 인지적 요인인 걱정(worry)과 정서(emotionality), 그리고 일반적인 시험불안을 4점 Likert 척도(1=거의 그렇지 않다, 4=항상 그렇다)상에서 측정한다. 걱정(예: ‘중요한 시험 전에는 걱정을 심하게 한다’)과 정서(예: ‘시험을 보는 동안 불안하고 초조하다’)를 측정하는 문항은 각각 15개, 일반적인 시험불안(예: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괜한 걱정을 한다’)을 측정하는 문항은 5개로 총 35문항이다. 각 하위요인의 점수는 개별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시험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시험불안 총점의 범위는 최소 35점에서 최대 140점이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신뢰도는 전체 .95, 걱정 .91, 정서 .90, 일반적 시험불안 .76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일부 연구(예: Stoeber et al., 2009)에서는 시험불안의 하위요인을 구분하여 각각 따로 분석한 반면, 대부분의 연구들(예: Mills & Blankstein, 2000)에서는 하위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시험불안의 총점을 구해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경험하는 전체적인 시험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하위요인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35문항의 총점을 구해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학업요구

본 연구에서는 이영복, 이상민, 이자영(2009)이 중·고등학생의 과중한 학업요구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영복과 동료들(2009)은 윤부성(2000)의 연구에서 과도한 업무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문항(예: ‘나는 해야 할 공부가 아주 많다’ ‘나는 몸이 많이 힘들 정도로 공부를 해야 한다’)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한다. 각 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요구가 과도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신뢰도는 .81로 나타났다.

학업소진

Schaufeli와 동료들(2002)이 개발하고 Shin과 동료들(2011)이 한국 학생들에 맞게 변안한 한국판 MBI-SS를 사용하여 학업소진을 측정했다. 이 척도는 탈진 5문항, 냉소 4문항, 그리고 학업 효능감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아니다, 5점=매우 그렇다)상에서 측정한다. 학업 효능감은 최종 분석에서 학업 무능감으로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Shin과 동료들의 연구(2011)에서 MBI-SS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탈진 .86, 냉소 .82, 학업 무능감 .82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탈진 .80, 냉소 .87, 학업 무능감 .81, 그리고 전체 학업소진은 .87의 신뢰도를 보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8.0과 SP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 집단의

일반적 특성과 각 변인들 간의 양상을 살펴 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Hayes와 Preacher(2012)가 제안한대로, SPSS Macro를 이용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또한 검증된 매개효과를 바탕으로, 학업요구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시험불안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Preacher, Rucker 및 Hayes(2007)의 제안을 따라, Hayes(2014)의 SPSS Macro 명령문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했다.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은 다중공선성을 예방하기 위해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Z점수로 변환한 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분석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와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시험불안($r=.42, p<.01$), 학업소진($r=.22,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시험불안은 학업소진($r=.33,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학업요구 역시 시

험불안($r=.31, p<.01$), 학업소진($r=.30,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 시험불안, 학업요구 세 요인이 모두 학업소진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으며, 각각의 요인 또한 서로 유의미한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 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에 대해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추후 분석을 실시하여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시험불안의 매개모형 검증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를 시험불안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Hayes와 Preacher(2012)가 제시한 SPSS Macro를 활용한 매개효과 분석의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전체효과(c)의 회귀계수는 $.24(t=3.982, p<.001)$ 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소진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매개변인인 시험불안에 미치는 경로(a)의 계수는 $.43(t=8.404, p<.001)$ 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시험불안 또한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독립변인인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통제

표 1. 변수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변인	1	2	3	4	M	SD	왜도	첨도
1. 시험불안	-	.42**	.31**	.33**	1.83	.53	.70	.09
2. 사회부과 완벽주의		-	.26**	.22**	3.84	.52	-.31	.11
3. 학업요구			-	.30**	3.27	.71	.12	-.23
4. 학업소진				-	2.84	.57	.01	-.20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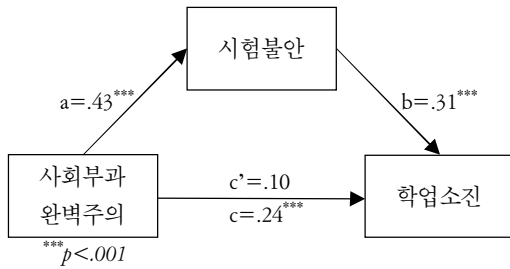


그림 1. 매개모형

표 2. 시험불안의 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변수	Boot 계수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시험불안	.134	.282	.085	.196

한 상태에서 매개변인인 시험불안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b)을 확인해 본 결과, 경로 회귀계수는 .31($t=5.036, p<.001$)로 나타났다. 반면, 매개변인인 시험불안을 통제된 상태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직접효과(c')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11$).

매개모형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위해 재추출한 표본수는 5,000개였고, 이를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값, 상한값은 표 2와 같이 각각 .085와 .196으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험불안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시험불안을 완전 매개하여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매개된 조절모형 검증

시험불안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후, Hayes

(2014)가 제시한 SPSS Macro 명령문을 이용해 매개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요구의 상호작용이 매개변인인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a_3)이 유의했다($B=.06, p<.05$). 이를 통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시험불안의 관계에서 학업요구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조절변수인 학업요구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3 참조). 조절효과와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요구 각각,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높거나 낮은 점수를 얻은 집단을 구분한 후 회귀선을 그려보았다. 그 결과,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학업요구 수준에 따라 경험하는 시험불안의 정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낮은 집단은 학업요구 높을 때와 낮을 때 경험하는 시험불안의 정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은 집단은 학업요구가 높을 때, 낮을 때보다 시험불안을 훨씬 더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의 결과를 바탕으로 매개된 조절효과의 크기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Preacher et al., 2007).

$$f(\hat{\theta}/W) = \hat{b}_1(\hat{a}_1 + \hat{a}_3W) = .27(.19 + .06*학업요구)$$

매개된 조절효과의 크기를 산출하는 위의 식을 통해 조절변수인 학업요구의 수준에 따라 조건적 간접효과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에 제시한 조절변수의 조건적 간접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절변인인 학업요구의 값이 평균값 - 1SD, 평균값,

장은비 등 /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 학업요구를 통한 시험불안의 매개된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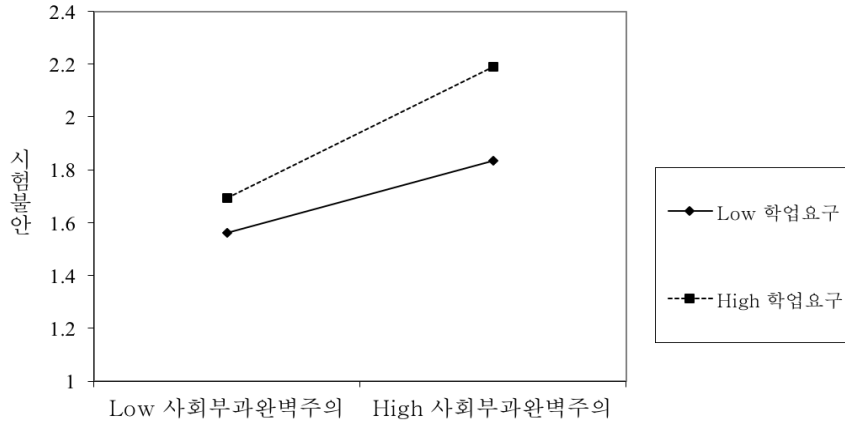


그림 2.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요구의 상호작용효과

표 3. 연구모형의 매개된 조절효과

독립변수	B	SE	t	p
시험불안				
Constant	1.82	.03	69.37	.000
사회부과 완벽주의(a ₁)	.19	.03	7.28	.000
학업요구	.12	.03	4.58	.000
사회부과 완벽주의 x 학업요구(a ₃)	.06	.02	2.53	.012
학업소진				
Constant	2.35	.12	19.75	.000
시험불안(b ₁)	.27	.06	4.32	.000
사회부과 완벽주의(c' ₁)	.03	.03	.98	.326
학업요구	.11	.03	3.57	.000
사회부과 완벽주의 x 학업요구	-.04	.03	-1.70	.091

표 4. 조절변수의 조건적 간접효과

학업요구	Indirect Effect	SE	Z	p	Bootstrap 95% Confidence Intervals		
					Percentile	BC	BCa
-1 SD	.04	.01	2.84	.005	[.02,.06]	[.02,.07]	[.02,.07]
M	.05	.01	3.68	.000	[.03,.08]	[.03,.08]	[.03,.08]
+1 SD	.07	.02	3.68	.000	[.03,.10]	[.04,.11]	[.04,.07]

평균값+1SD로 순차적으로 커질수록 조건적 간접효과 역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04, .05, .07).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의 95% 신뢰구간 역시 모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즉 학업요구 수준이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 모두, 사회부와 완벽주의가 시험불안을 매개하여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학업요구가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상호작용하여 매개변인인 시험불안의 정도를 조절하는 매개된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시험불안, 학업소진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시험불안의 관계를 학업요구가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주요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부와 완벽주의는 시험불안을 완전 매개해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회부와 완벽주의 특성이 강할수록 시험불안이 높고, 시험불안이 높기 때문에 학업소진도 많이 됨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회부와 완벽주의는 시험불안(박병기, 임신일, 2010; 이현주, 손원숙, 2013; 정아현, 강민주, 2014; 최원혜, 문은식, 2004; Mills & Blankstein, 2000; Stoeber et al., 2009)뿐 아니라 학업소진(Chang et al., 2015)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관된다. 또한, 시험불안과 학업소진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찾기 어렵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불안이 소진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 선행 연구들(Oehler, Davidson, Starr, &

Lee, 1991; Turnipseed, 1998)은 물론 높은 시험불안은 학업 수행 및 학업 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노지영, 2005; Chapell et al., 2005; Hancock, 2001; Hembree, 1988; Zamir & Hina, 2014)는 연구 결과들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최원혜와 문은식(2004)은 시험 한 달 전, 시험 예고일, 시험 직전, 시험 직후에 시험불안을 측정했다. 그 결과, 완벽주의 집단은 비완벽주의자 집단에 비해, 사회부와 완벽주의 집단은 자기지향 완벽주의 집단에 비해 네 시점 모두에서 시험불안을 높게 경험했다. 즉, 사회부와 완벽주의 집단은 시험을 전후로 높은 시험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사회부와 완벽주의자가 경험하는 만성화 되다시피 한 시험불안이 학업소진에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사회부와 완벽주의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학업요구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부와 완벽주의가 높은 대학생의 경우 학업요구가 높다고 지각하면 낮다고 지각할 때 보다 훨씬 더 시험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의 기준이나 요구에 민감한 사회부와 완벽주의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사회부와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학업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학업요구가 과다하다고 지각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평가에 대한 불안을 높게 경험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학업요구가 높을 때, 낮을 때보다 전반적으로 시험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학업요구는 학업지연을 유발하고, 자기존중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장진이, 이지연, 2013), 학업소진(김민애 등, 2010)을 유발한다. 본 연

구의 결과 역시 과도한 학업요구가 학업 장면에서 부정적 결과를 야기한다는 선행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부모의 학업적 기대나 성취압력과 같은 개념을 사용하여 학업적 부담감을 연구한 내용(임신일, 박병기, 2013; 정중희 등, 2009; 황상미, 정현희, 2012)을 보면, 부모의 학업에 대한 과도한 몰입과 압력은 자녀의 시험불안을 높인다.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이와 일관되게 해석할 수 있다.

연구 결과와 관련해, 사회부과 완벽주의자가 경험하는 시험불안과 학업소진에 대한 개입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사회부과 완벽주의자의 학업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경험하는 시험불안을 줄일 필요가 있다. 김문주(1991)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경험하는 시험불안에는 시험결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창피를 당하는 것도 포함된다. 부모와 교사, 교수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시험결과만으로 학생을 평가하거나 비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좀 더 다양한 평가 방식과 기준을 마련하여 학생의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험불안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조용래, 2008)이나 사회적 지지(정중희 등, 2009)등을 통해 경감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학생들의 시험불안을 줄이고, 학업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사회적지지 체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사회부과 완벽주의자들에게 요구되는 학업 수준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정아현과 강민주(2014)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아동의 시험불안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모나 교사가 달성 가능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장진이와 이지연(2013) 역시, 과도한 학업요구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인식하고, 적절한 수준의 학업요구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인 학생을 만나게 되면, 상담자는 그들에게 요구되는 학업 기대 수준과 목표를 함께 점검하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교사나 교사, 부모 역시 과도한 학업적 요구나 기대로 인한 부작용을 인식하고 학생들 개인의 수준에 맞게 이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학업통제감은 학업요구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김민애 등, 2010). 그러나 중·고등학교 시절 주입식 교육을 받아온 영향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대학생들도 많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상담 프로그램이나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부 방법이나 시간 관리, 목표 설정 방법 등을 교육하거나 코칭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통제감을 높이고 시험불안은 물론 학업소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다양한 완벽주의의 분류 중에서도 Hewitt과 Flett(1991)의 방식을 따라 완벽주의를 구분하였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완벽주의를 Frost와 동료들(1990)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여섯 차원이나 Slaney와 동료들(2001)의 세 차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하고 결과를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시험불안 척도를 대학생에게 맞게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척도(TAI-K)는 본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의 시험불

안을 충분히 반영하여 측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시험불안을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척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라 시험불안과 학업소진, 학업요구에서 차이가 있는지는 살펴보지 않았다. 그러나 대학생의 경우, 시험불안과 학업소진 정도는 학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유계숙, 신동우, 2013; 유혜숙, 양야기, 2014) 학업요구 역시 학년에 따라 다르게 지각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른 차이 가능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 연구이기 때문에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방법을 이용해 사회부과 완벽주의, 시험불안, 학업소진, 학업요구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시험불안, 학업소진간의 관계를 한 단면에서 살펴보고 그 개입 방안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를 시험불안이 완전 매개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내고,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시험불안을 조절할 수 있는 변인을 동시에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시험불안(예: 이현주, 손원숙, 2013),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예: Chang et al., 2015)과 같이 각 요인들을 따로 나누어 살펴본 선행 연구들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자, 부모, 교수는 물론 학생 스스로가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로 인한 학업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홍월 (2012). 대학생 학습동기 유형에 따른 학업소진과 학업적 실패내성의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13(1), 125-147.
- 김문주 (1990). 시험불안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심리*, 4(1), 91-110.
- 김문주 (1991). 우리나라 학생들의 시험불안진단을 위한 도구개발과정.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1), 32-42.
- 김민애, 이상민, 신효정, 박양민, 이자영 (2010). 과중한 학업요구와 학업소진과의 관계: 통제감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7(1), 69-84.
- 김병직, 이동귀, 이회경 (2012). 사회부과 완벽주의 및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우울간의 매개변인 탐색: 사회불안과 반추. *상담학연구*, 13(2), 417-436.
- 김성경 (2003). 연구논문: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2), 215-237.
- 김영실, 이지연 (2012). 초등학생에게 요구되는 과중한 학업과 학업소진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통계*, 10(3), 115-126.
- 남상필, 이지연, 장진이 (2012). 학업성취 압력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자기통제감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21(3), 219-230.
- 노지영 (2005). 청소년의 시험불안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6(4), 458-466.
- 박병기, 임신일 (2010). 시험불안 관련변인의 메타분석. *교육심리연구*, 24(4), 875-894.

- 박유미, 임영진 (2015).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시험불안 간의 관계: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6(1), 117-128.
- 박일경, 이상민, 최보영, 이자영 (2010). 5 요인 성격특성과 학업소진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1), 81-93.
- 박지연, 양나미 (2014).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363-388.
- 설희정, 이동귀, 배병훈 (2014). 중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대인불안에 이르는 경로 탐색: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비합리적 신념”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2), 335-356.
- 신민섭, 조수철, 유태익 (1999). 시험불안과 정신병리, 기질 그리고 가정환경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시험불안-우울-불안-자기개념-가정환경간의 인과적 관계분석.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0(1), 50-63.
- 신정민, 박명숙, 함경애 (2014).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아동의 발표불안과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0(4), 23-43.
- 신효정, 김보영, 이민영, 노현경, 김근화, 이상민 (2011). 중학생의 정신건강과 학업소진의 단기중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8(2), 133-152.
- 염시창, 박현주 (2005). 일반계 여고생의 완벽주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시험불안의 관계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1), 19-35.
- 오지은, 추상엽, 임성문 (2009). 부모의 학업적 성취압력과 청소년 자녀의 시험불안 간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0(4), 209-237.
- 유계숙, 신동우 (2013). 대학생의 학업, 취업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소진 및 취업 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14(6), 3849-3869.
- 유혜숙, 양야기 (2014).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아개념이 대학생의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기본간호학회지, 21(3), 275-282.
- 윤부성 (2000). 아내학대 관련기관 상담원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숙정, 유지현 (2008). 대학생의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2(3), 589-607.
- 이영복, 이상민, 이자영 (2009). 한국형 학업소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교육학연구, 15(3), 59-78.
- 이은희 (2004).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25-48.
- 이자영 (2010). 과도한 학업요구와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성취목표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4), 1551-1565.
- 이자영, 최혜라 (2014). 완벽주의와 학업소진간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11), 6556-6564.
- 이현아, 조한익 (2013). 완벽주의와 학업열의 및 학업소진과의 관계: 동기와 목표과정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575-601.
- 이현주, 손원숙 (2013). 고등학생의 자기지향과 타인지향,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기조절

- 학습 및 시험불안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1), 219-239.
- 임신일, 박병기 (2013). 국내, 외 시험불안 연구의 메타분석. 교육심리연구, 27(3), 529-553.
- 장진이, 이지연 (2013). 초등학생의 과중한 학업요구와 학업적 꾸물거림과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5(2), 247-265.
- 정아현, 강민주 (2014). 완벽주의와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5(1), 61-76.
- 정종희, 정현희, 이귀숙 (2009). 부모의 성취압력이 중학생의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 성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3), 377-393.
- 조용래 (2008). 시험불안에서 상위인지의 역할: 우울수준, 실수에 대한 완벽주의적 염려, 학습기술 및 학업적 자기 효능감의 영향을 넘어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3), 709-727.
- 조이슬, 강영신 (2015).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불안민감성의 매개 효과. 상담학연구, 16(4), 359-375.
- 조한익, 이현아 (2009).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에 있어서 내외통제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6(11), 1-23.
- 조한익, 이현아 (2010). 완벽주의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취목표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7(12), 131-154.
- 조혜진, 이지연, 장진이 (2013). 고등학생의 과중한 학업요구와 학업소진과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실패내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3), 1605-1621.
- 최원혜, 문은식 (2004). 고등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에 따른 시험불안의 차이. 교육심리연구, 18(1), 23-35.
-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은아, 김보영, 이상민, 신호정 (2011). 부모양육 태도와 부모소진 및 자녀 학업소진의 관계. 한국교육학연구, 17(1), 270-293.
- 황상미, 정현희 (2012). 연구논문: 부모의 성취압력과 고등학생의 시험불안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5), 1-20.
- Bong, M., Hwang, A., Noh, A., & Kim, S. I. (2014). Perfectionism and motivation of adolescents in academic contex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6*(3), 711-729.
- Chang, E., Lee, A., Byeon, E., & Lee, S. M. (2015). Role of motivation in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academic burnout in Korean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2*, 221-226.
- Chang, E., Lee, A., Byeon, E., Seong, H., & Lee, S. M.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motivational typ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academic burnou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9*, 202-210.
- Chang, E. C., & Rand, K. L. (2000). Perfectionism as a predictor of subsequent adjustment: Evidence for a specific diathesis - stress mechanism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129-137.
- Chang, E. C., & Sanna, L. J. (2001). Negative attributional style as a moderator of the link

- between perfectionism and depressive symptoms: Preliminary evidence for an integrative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4), 490-495.
- Chapell, M. S., Blanding, Z. B., Silverstein, M. E., Takahashi, M., Newman, B., Gubi, A., & McCann, N. (2005). Test Anxiety and Academic Performance in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7(2), 268-274.
- Childs, J. H., & Stoeber, J. (2010). Self-oriented, other-oriented,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in employees: Relationships with burnout and engagement. *Journal of Workplace Behavioral Health*, 25(4), 269-281.
- Childs, J. H., & Stoeber, J. (2012). Do you want me to be perfect? Two longitudinal studies o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stress, and burnout in the workplace. *Work & Stress*, 26(4), 347-364.
- Dean, P. J., Range, L. M., & Goggin, W. C. (1996). The escape theory of suicide in college students: Testing a model that includes perfectionism.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6(2), 181-186.
- Eum, K., & Rice, K. G. (2011). Test anxiety, perfectionism, goal orienta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Anxiety, Stress, & Coping*, 24(2), 167-178.
- Flett, G. L., & Hewitt, P. L. (2005). The perils of perfectionism in sports and exercis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1), 14-18.
- Flett, G. L., Hewitt, P. L., Garshowitz, M., & Martin, T. R. (1997). Personality, negative social interactions, and depressive symptom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u Comportement*, 29(1), 28-37.
- Freudenberger, H. J. (1974). Staff burn-out. *Journal of Social Issues*, 30(1), 159-165.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5), 449-468.
- Gan, Y., Shang, J., & Zhang, Y. (2007). Coping flexibility and locus of control as predictors of burnout among Chinese college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5(8), 1087-1098.
- Hancock, D. R. (2001). Effects of test anxiety and evaluative threat on students' achievement and motiv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4(5), 284-290.
- Hayes, A. F. (2014). SPSS MODMED Macro Syntax Reference. Retrieved from <http://www.afhayes.com/spss-sas-and-mplus-macros-and-code.html>
- Hayes, A. F., & Preacher, K. (2012). SPSS MEDIANTE Macro Syntax Reference. Retrieved from <http://www.afhayes.com/spss-sas-and-mplus-macros-and-code.html>
- Hembree, R. (1988). Correlates, causes, effects, and treatment of test anxiety.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8(1), 47-77.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 Hill, A. P., & Curran, T. (2015).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burnout: A meta-analysis.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20.
- Hill, A. P., Hall, H. K., Appleton, P. R., & Kozub, S. A. (2008). Perfectionism and burnout in junior elite soccer players: The mediating influence of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9(5), 630-644.
- Jacobs, S. R., & Dodd, D. (2003). Student burnout as a function of personality, social support, and workload.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4(3), 291-303.
- Klibert, J. J., Langhinrichsen-Rohling, J., & Saito, M. (2005). Adaptive and maladaptive aspects of self-oriented versu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6(2), 141-156.
- Koeske, G. F., & Koeske, R. D. (1991). Student "burnout" as a mediator of the stress-outcome relationship.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32(4), 415-431.
- Lee, M., & Larson, R. (2000). The Korean 'examination hell': Long hours of studying, di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2), 249-271.
- Liebert, R. M., & Morris, L. W. (1967). Cognitive and emotional components of test anxiety: A distinction and some initial data. *Psychological Reports*, 20(3), 975-978.
- Mills, J. S., & Blankstein, K. R. (2000). Perfectionism, intrinsic vs extrinsic motivation, and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9(6), 1191-1204.
- Miquelon, P., Vallerand, R. J., Grouzet, F. M., & Cardinal, G. (2005). Perfectionism, academic motiva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n integrative mode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7), 913-924.
- Oehler, J. M., Davidson, M. G., Starr, L. E., & Lee, D. A. (1991). Burnout, job stress, anxiety,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neonatal nurses. *Heart & lung: the Journal of Critical Care*, 20(5), 500-505.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Rana, R. A., & Mahmood, N.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test anxiety and academic achievement. *Bulletin of Education and Research*, 32(2), 63-74.
- Rice, K. G., & Preusser, K. J. (2002). The adaptive/maladaptive perfectionism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4(4), 210-222.
- Richardson, A. M., Burke, R. J., & Leiter, M. P. (1992). Occupational demands, psychological burnout and anxiety among hospital personnel in Norway. *Anxiety, Stress, and Coping*, 5(1), 55-68.
- Schaufeli, W. B., Martinez, I. M., Pinto, A. M., Salanova, M., & Bakker, A. B. (2002).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5), 464-481.
- Shin, H., Puig, A., Lee, J., Lee, J. H., & Lee, S. M. (2011). Cultural validation of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 for Korean students.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2(4), 633-639.

- Slaney, R. B., Rice, K. G., Mobley, M., Trippi, J., & Ashby, J. S. (2001). The revised almost perfect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4*(3), 130-145.
- Spielberger, C. D. (1980). *Preliminary Professional Manual for the Tes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Spielberger, C. D., Anton, W. D., & Bedell, J. (1976). The nature and treatment of test anxiety. In M. Zuckerman & C. D. Spielberger (Eds.), *Emotions and anxiety: New concepts, methods, and applications* (pp. 317-344). Hillsdale, NJ: Erlbaum.
- Stoeber, J., Childs, J. H., Hayward, J. A., & Feast, A. R. (2011). Passion and motivation for studying: Predicting academic engagement and burnout in university students. *Educational Psychology, 31*(4), 513-528.
- Stoeber, J., Feast, A. R., & Hayward, J. A. (2009). Self-oriented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Differential relationships with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and test anxie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5), 423-428.
- Stoeber, J., & Otto, K. (2006). Positive conceptions of perfectionism: approaches, evidence, challeng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 295-319.
- Turnipseed, D. L. (1998). Anxiety and burnout in the health care work environment. *Psychological Reports, 82*(2), 627-642.
- Yu, J. H., Chae, S. J., & Chang, K. H. (2016). The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perfectionism and academic burnout in medical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8*(1), 49-55.
- Zamir, S., & Hina, Q. A.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Test Anxiet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students at university level. *Journal of Education and Practice, 5*(4), 1-5.
- Zhang, Y., Gan, Y., & Cham, H. (2007). Perfectionism, academic burnout and engagement among Chinese college student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6), 1529-1540.

원고접수일 : 2016. 01. 25.

수정원고접수일 : 2016. 03. 15.

최종게재결정일 : 2016. 05. 26.

Relation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academic burnout: Testing the mediated moderating effect of test anxiety through academic demands

Eunbi Chang

Eunji Byeon

Hyunmo Seong

Sang Min Lee

Korea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 among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cademic demands, test anxiety, and academic burnout of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using mediated moderation analyses. As a result, test anxiety was fully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academic burnout. That i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greater level of test anxiety, in turn, greater test anxiety was positively related with academic burnout. Furthermore, academic demands moderated the effect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on test anxiety. Implications, future research direc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cademic burnout, test anxiety, academic demands, mediated moderating effect*